

전기차 위탁생산에 발 딛는 Foxcon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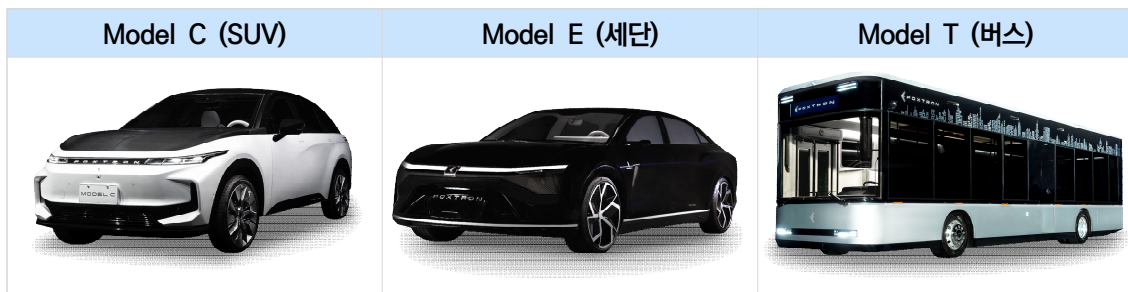
KATECH Insight

- ◆ 전자제품 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의 기업인 대만 Foxconn이 전기차 위탁생산을 위해 자회사 Foxtron을 설립하고 생산시설 확충 및 개방형 전기차 플랫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
- ◆ 양산·공급망 관리 노하우가 풍부한 Foxconn은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 도전하는 신생 기업 및 생산 현지화 리스크를 줄이려는 일부 레거시 기업과 협력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할 여지가 있음

■ 전자제품 위탁생산(EMS*) 분야 세계 1위인 Foxconn이 단숨에 車 산업의 전면에 등장

- * 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는 기술 변화가 빠른 전자제품의 생산, 설계 지원, 공급망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, '21년 해당 세계 시장에서 Foxconn은 약 40%를 점유
- Foxconn(鴻海科技集團)은 반도체 위탁생산자인 TSMC와 더불어 대만을 대표하는 기업으로, Apple, Google, Sony 등 다국적 기업의 전자제품 위탁생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음
- 새로운 성장 동력을 탐색해온 Foxconn은 '20년 자회사 Foxtron(鴻華先進科技)을 설립한 직후 전기차 프로토타입을 연이어 공개하며 완성차 생산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
 - '15년 Tencent와의 협력을 전후로 자동차 사업에 본격적인 관심을 표명하였으며, '20.11월 대만에서 Nissan 자동차를 면허 생산해온 Yulon Group과의 합작사인 Foxtron을 설립
 - Foxtron 설립 약 1년 후인 '21.10월 SUV, 세단, 버스 형태의 배터리 전기차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고 '22.10월에는 2개 모델을 추가 공개함으로써 완성차 풀 라인업 생산 역량을 과시
 - * '21.10월 Model C(SUV)/E(세단)/T(버스), '22.10월 Model B(해치백)/V(픽업트럭) 공개
 - 단 Foxtron 자체 브랜드의 완성차보다는 Magna Steyr, Valmet Automotive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동차 위탁 생산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
- * CEO인 Young Liu가 자체 브랜드 완성차 생산을 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공개 선언했을 뿐 아니라, 기 공개한 자동차들을 'Reference Design'으로 지칭하며 위탁 생산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음

■ Foxtron의 전기차 Reference Design (출처: Foxtron 홈페이지) ■



■ 글로벌 생산 거점을 늘리는 동시에 개방형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하여 협력 범위를 확대

- 美 Ohio 주 완성차 공장 인수('22.5월) 후 대만 Kaohsiung 배터리 공장 건설에 착수('22.6월) 하였으며, 태국·인도네시아 등지에도 생산시설 확보 추진 중 (Reuters 外)

* 美 Ohio Lordstown 공장에서는 Lordstown Motors와 Fisker의 완성차를 위탁생산할 계획

- 모듈러 설계에 초점을 둔 전기차 플랫폼 MIH(Mobility in Harmony)로 유관 기업과 폭넓게 협력

- MIH는 H/W와 S/W의 통합 플랫폼으로 파트너사가 자유롭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으며 Foxconn은 그 과정에서 자동차의 시스템 기술과 각종 준수사항(compliance)을 습득

* MIH 컨소시엄은 Foxconn의 주도로 '20년에 결성되었으며 ARM, STMicro, Infineon, Bosch, Nidec, CATL, Amazon, Microsoft 등이 직·간접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

- Foxconn이 MIH로 얻고자 하는 것은 전기차 주요 구성요소의 모듈화와 개방성 확대로, 궁극적으로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스마트폰에서의 Android와 같은 위상을 점하는 것

■ 양산·공급망 관리 능력이 강점이나, 車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 달성에는 난관 예상

- Foxconn은 대량 생산 및 품질 관리, 관련 광물·소재의 글로벌 소싱 노하우가 최고 수준

- 일례로 Foxconn은 3C(컴퓨터, 통신, 전자 제품)의 연간 공급량이 약 56억 개에 달할 정도로 양산에 능숙하고, 전 세계 24개국에서 현지 생산 및 관련 공급망 관리를 병행 중

- '25년 세계 전기차 생산의 5% 점유가 목표이나, 타사 대비 제조원가 우위 달성은 불투명

- Bloomberg NEF 예측에 의하면 '25년 전 세계 승용 전기차의 판매량은 연간 2,100만대로, 5%인 105만대를 Foxconn이 생산하더라도 규모의 경제에 따른 제조원가 우위는 제한적

* 자체 생산 중심인 레거시 기업의 '25년 전기차 생산량 목표가 대부분 연산 100만대를 초과하기 때문

■ 신생 기업 및 레거시 기업의 생산 현지화 수요가 Foxconn 성장을 이끌 여지가 있음

- S/W 역량을 바탕으로 자동차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색하는 빅테크(Big Tech) 등이 완성차 시장에 도전한다면, 그간 검증된 Foxconn의 생산 능력을 활용할 개연성이 높음

- 그 경우 Foxconn의 유력한 고객사는 위탁 생산을 통해서도 충분한 이익률이 보장되는 프리미엄 완성차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이 될 것임

* Magna Steyer가 BMW, Jaguar, Mercedes-Benz 등 고가 차량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점이나, 최근 Foxconn이 준 프리미엄급인 Tesla의 생산을 담당하고 싶다고 밝힌 것도 이와 일맥상통함

- 다만 흔히 거론되는 Apple은 고유의 제품 설계·폐쇄적 생태계를 선호하므로 설령 Foxconn 위탁 생산으로 완성차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Foxconn에 제품 주도권을 줄 가능성은 낮음

- 한편 주요국이 자국 경제권 내 車 생산을 유도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, 생산 현지화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떠안은 일부 레거시 완성차 기업도 Foxconn에 주목할 수 있음

* 다만 제품 동질화보다 차별화를 중시하는 레거시 기업들이 Foxconn 전략에 얼마나 동조할 것인지가 관건